

고흥군 '어르신 청춘 바우처' 시행

80세 이상 1만여명 대상

연간 6만원 목욕·이미용비 지원

11월 시행...내달 13일부터 신청

고흥군이 오는 11월1일부터 '어르신 품위유지 청춘바우처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목욕 및 이미용 비용을 지원해 위생과 건강을 지키고, 활기찬 일상을 돕는 복지정책이다.

군은 올해 군비 2억 9300만원을 투입해 주민등록상 고흥군에 거주하는 80세 이상 어르신 1만여 명에게 1인당 연간 6만원(반기별 3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지급된 바우처는 지역 목욕탕과 이미용실에서 사용할 수 있어, 어르신들의 위생 관리와 건강증진은 물론 자부심을 높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다음달 13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신청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바우처 카드는 10월 29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사용기한은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다. 기간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고흥군은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인구가 7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인구비율도 46.6%로 전국 3위에

해당한다. 이는 고흥군이 장수 고장임을 보여주며, 군은 이러한 장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다양한 어르신 지원 정책을 추진하며, 어르신이 행복한 고흥을 만들어 가고 있다.

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이번 청춘바우처 지원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장수 고흥의 전통을 이어가는 든든한 복지정책"이라 며"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충실히 추진해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어르신들에게는 건강한 장수의 밑거름이 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순천시 공공보건의료협의회 2기 위원들이 지난 15일 순천형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등 지역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했다.

순천시, 제2기 공공보건의료협의회 출범

필수의료지원재단설립 등 논의

순천시가 최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제2기 공공보건의료협의회를 개최하고, 신규 위원 위촉과 함께 지역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했다.

공공보건의료협의회는 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 발전과 시민의 건강 보호·증진을 위한 민·관 협의 기구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필수 의료 확충 등을 위한 자문 및 정책 제안을 수행한다.

이번 회의에는 순천지역 주요 병원장을 비롯한 의료계 대표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공공보건의료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재혁 성가톨릭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의 '순천지역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으며, 위원들은 자유토의를 통해 환자 이송 체계 개선, 전문 인력 확충, 병원 간 협력 강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시는 올해 말 설립 예정인 '순천필수의료 지원재단'과 이번 협의회를 긴밀히 연계해 지역 의료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단은 응급·심뇌혈관질환·소아·분만 분야 등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재혁 성가톨릭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의 '순천지역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으며, 위원들은 자유토의를 통해 환자 이송 체계 개선, 전문 인력 확충, 병원 간 협력 강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재혁 성가톨릭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의 '순천지역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으며, 위원들은 자유토의를 통해 환자 이송 체계 개선, 전문 인력 확충, 병원 간 협력 강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보성 벌교갯벌 깃대종, 멸종 위기 '알락꼬리마도요' 지정

지역 생태계 대표 동식물 선포

보성군이 오는 20일 장양아촌체험마을 특설무대에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보성벌교갯벌의 깃대종(지역 생태계를 대표하는 동식물)으로 '알락꼬리마도요'를 선포한다.

알락꼬리마도요는 아시아와 호주를 오가며 보성벌교갯벌을 핵심 기착지로 삼는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이동성 물새로, 군은 이를 깃대종으로 지정해 갯벌 보전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릴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업무협약을 맺고, 멸종위기종 조사·국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주민 참여형 생태교육 등을 추진해 국제 협력 기반을 넓힌다.

현장에는 학계 전문가, 어업인, 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하며, 갯벌 사진 전시회와 지역 가수 공연도 이어져 생태 보전 메시지를 한층 풍성하게 전할 예정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깃대종 선포는 갯벌을 미래 세대에까지 지켜내겠다는 우리 군의 약속"이라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보성벌교갯벌의 깃대종으로 지정된 '알락꼬리마도요'.

"보성벌교갯벌이 단순한 체험 공간을 넘어 국제사회와 함께 보전해 나가는 생태관광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선포식은 같은 날 개막하는 '2025 보

성벌교 갯벌축제'와 연계해, 관광객과 주민들이 갯벌의 즐거움과 보전 가치를 함께 나누는 특별한 자리로 이어질 전망이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전남도 마을공동체 우수사례

곡성군 최우수상·장려상 수상

곡성군이 '2025년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우수사례 선정'에서 시군 우수센터 분야에 최우수상과 마을공동체 우수사례 분야에 장려상을 받았다.

최우수상을 받은 곡성군 행복학습공동체지원센터는 지난 2020년 7월 설립된 이후 지역공동체 사업과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 공동체들이 주민 중심의 지역 문제 발굴 및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마을공동체 우수사례로 선정된 '오곡면 침곡마을'은 농촌의 노년층을 중심으로 스콘다, 집밥, 토탈공예, 각종 레크레이션, 생일잔치 등을 제공해 윤택하고 활기찬 마을을 조성했다.

/곡성=박순규 기자 psk8210@

여수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340원

올해보다 350원, 3.23% 인상

여수시가 지난 8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26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34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5년 생활임금 1만990원보다 350원(3.23%)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 고시 2026년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020원(9.88%) 높은 수준이다. 월 급여(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37만 60원으로, 최저임금 월 급여 215만 6880원보다 21만 3180원 많은 금액이다.

이번 생활임금은 여수시 생활임금 평균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 물가상승률 전망치, 근로자 가구 가계지출 증감률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보완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여수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등 소속 근로자 1,500여 명에게 적용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이 근로자의 안정적 생활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떡류가공협회 광양시지부, 광양읍에 후원품

광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6일 (사)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광양시지부에서 한과 70상자와 참기름(1.5리터) 25병, 총 195만원 상당의 후원품을 기탁했다.



이번 후원품은 광양읍 맞춤형복지팀이 다자녀, 어르신 등 취약계층 가구를 선정해, 광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가정방문을 통해 전달 예정이다.

김중완 (사)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전남도지회장은 "한가위를 맞아 우리 광양시지부 회원들이 정성껏 만든 한과와 직접 짠 참기름을 지역 주민과 나눌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김미란 광양읍장은 "추석을 맞아 지역 이웃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을 후원해 주신 협회에 감사드리

다. 이번 후원품이 받는 분들께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회원들의 정성이 담긴 뜻을 관내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구례농업기술센터, 농업인 대상 안전교육

올해 농업기계 관련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구례군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8월 말 기준 전국 농업기계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4명에서 올해 16명으로 4배 급증했으며, 이 중 15명이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었다. 사고 유형은 단독사

고 10건, 차량과의 충돌 6건으로 대부분 운행 중 부주의에 따른 것이었다.

구례군 농업기술센터는 매주 마을을 순회하며 농업기계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생활 속 실천 중심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련다/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련다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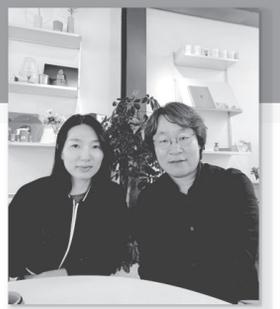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